

월요광장

기억은 왜 모서리에서만 빛나는가



송광룡 시인·계간 문학들 발행인

말년에 아버지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를 앓았다. 걸을 땀 팔과 다리가 따로 돌아 급제 쓰러질 것 같았고, 눈앞에 자꾸 하루살이 때 같은 것이 어른거린다면 손을 휘젓곤 했다. 급기야는 집 안 곳곳에서 무시로 넘어져서다. 병실 침대에 팔과 다리를 묶인 채 무부림지시던 아버지, 약물에 취해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고 어린이처럼 입가에 질질 침을 흘리시던 아버지. 눈을 감기까지 아버지는 쉴 새 없이 눈을 깜박거렸다. 입술을 달싹거리고 손짓도 했다. 나는 아버지의 입 가까이에 귀를 계속 갖다 대었지만,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말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소리는 입술 언저리에서 뱀뿤다 거꾸로 저편으로 가듯 사라져 버리곤 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버지의 말들은 밝히고, 밝히고, 맥장 하늘이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

이 아니었다. “입술에 침을 발라서라도 끝끝내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떠오른다 오로지 눈빛으로만 읽던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 다행이다 어쨌든 눈빛보다 먼저 죽는 인간의 입술”(유홍준의 시, ‘입술의 죽음’). 내게도 그런 아버지의 눈빛만은 길게 남았다. 그것이 ‘다행’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배태 긴 아버지의 눈가로 흘러내리던 눈물과 입 가장자리에 얼룩지던 끈끈한 타액들. 몇 번의 고비 끝에 아버지의 손이 새벽녘에야 잠잠해졌을 때, 어머니는 투병으로 가늘어진 아버지의 손목을 힘껏 잡고 있었고, 나는 푸르렁렁한 심줄만 볼룩한 아버지의 손을 그제야 가만 잡아 보았다. 따스했다. 그 많은 날들 중 기억은 왜 모서리에서만 아프게 빛날까. 왜 기억은 무디지 않고 날카로운 곳에서 빛날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죄밖에 없어. 그런데 내 자식을 왜 저렇게 만들었어! 구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하고 경찰들이 죄악 서터라고요. 우리는 그 뒤에 의자 놓고 아이스박스 닫고 섰어요. 우리가 쓴 글자 잘 보이게 하려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릴 슬쩍 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땀고 와라. 내가 우리 아들 얼굴이라 보고 파문을란다. 내가 시신이라도 봐야제 이대로는 못 보낸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 너무 억울하다. 내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군인들의 총에 죽어야 했느냐? 아이들이 군인들만 보면 놀란다. 생사람 죽었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것 아니냐?” 앞의 인용문 두 소절은 세월호 유가족의 증언(‘금요일엔 돌아오렴’)이고, 뒤의 두 소절은 5·18민중항쟁 유가족의 증언(‘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이다. 부재의 시간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해 뜨는 아침도 통증이다. ‘어디서 날이 밝아 온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서로서로 빛을 비추며 죽은 아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별들도 날카로운 못으로 빛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이 된다. “별이 못이라면 깊이를 잴 수 없이 깊을, 누구의 가슴에도 깊이를 알 수 없이 깊은 못입니다”(김형숙의 시, ‘빛’). 어느 날엔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깜박 잠이 들기도 한다. 갑갑한 저 편으로 압박, 다녀오는 것이다. 눈을 뜨면 차량 밖은 눈부시고,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 눈부심이 슬퍼서 눈을 다시 짙건 감아 버린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다. 한밤에는 자꾸 돌아눕게 된다. 아무도

없다. 차갑고 축축한 어둠뿐이다. 이따가 지 이불을 뒤집어써도 사방이 딱딱한 벽뿐이다. 고개를 내밀고 눈을 크게 떠도 검은 천정뿐. 책들은 입을 다물고 책장 속으로 등을 돌려 버렸다. 다시 돌아눕고. 아무리 돌아누워도, 아무도 없다. ‘사람은 사라지고 검은 튜브만 돌아온 모래사장’(김형숙의 시, ‘저녁의 감정’). “안개 속의 도시”다. “갈 모를 장래 행렬, 어떤 눈동자는 진흙처럼 어둡고 어떤 눈동자는 촛불처럼 붉다. ‘어떤 손짓은 멀리 떠나보내느라 흔들리고 어떤 손짓은 어서 돌아오라고 흔들’린다. ‘어떤 얼굴은 영원히 보게 될 것 같아서 너의 마지막 얼굴’ 같고, 아직도 ‘살아 있는 얼굴’ 같다.(김형숙의 시, ‘एको의 초상’) 눈을 깜박거리려는 것, 입술을 달싹거리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저렇게 발짓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발화되지 못한 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이 임박한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시중엔 세월호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한겨레),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이상 창비), ‘눈먼 자들의 국가’(문학동네), ‘엄마, 나야’(난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예측),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실천문학사) 등등이다)

법조칼럼

가정의 달에 돌아본 상속재판



김상연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별그룹의 회장이나 거액의 자산가가 사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때마다 ‘유류분’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도대체 유류분이 무엇인가에 의절한 채로 지내던 혼외자나 형제들이 망인의 뜻과 무관하게 수십 년 전에 물려준 재산까지 거론하며 다투는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亡人)이 생전에 여러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만 가진 재산을 다 주어서 정작 사망할 때에는 상속재산

이 없는 경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은 이를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부양이 필요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유류분 같은 것이다. 사망 후 이루어지는 상속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이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남은 가족들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형제간에도 큰 고기는 자기 탕에 담는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남이나 다른 형제에게 부모의 재산 대부분이 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면 비록 그것이 돌아가신 분의 뜻이라 하더라도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속이 편할까? 상속인들 모두가 얼마간의 재산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남아 있는 가족들의 화합을 유도하는 셈이다. 유류분 제도는 경제적 약자 특히 여성 등의 보호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딸, 혼외자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장남을 비롯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류분 제도 덕분에 딸이나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아 차별의 설움을 얼마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남편이 사망할 무렵 자녀는 이미 장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반면 홀로 남은 배우자는 나이는 많고 직업은 없어서 남은 생을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상속에서 제외된다면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때에도 배우자는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정에서 접하는 모습은 안타까울 지체이다. 대개는 자신이 받은 것은 감추거나 받을만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간 재산은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애쓴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운 오래된 일들을 거론하며 날선 비방을 하고 상대방이 망인을 얼마나 출대하였는지 증명하려 힘쓴다. 구태여 떠올리지 않아도 좋을 불쾌한 기억을 꺼내 곱씹으며 재판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같은 시절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평생 바쳐 힘들게 모은 재산 때문에 사후에 가족이 다투고 소송까지 벌인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가족 모두가 서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재산을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고

‘에너지밸리 R&D센터’ 입지 갈등 해법



이정록 전남대 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추수가 끝나고 형제는 자기 눈에 남가리를 쌓았다. 귀가한 형제는 고민에 빠졌다. 형님은 갖 결혼한 동생 살림이 걱정됐다. 동생도 식구가 많은 형님 대이 걱정됐다. 그해 형님은 동생 남가리에, 동생은 형님 남가리에 자기 밭만 일부를 밭에 옮겨 놔다. 다음날 아침 형제는 깜짝 놀랐다. 남가리 높이가 똑같아서다. 두 형제는 달밤에 다시 밭단을 옮기다가 그만 마주친다. 익히 알고 있는 동화 ‘의좋은 형제’의 줄거리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 면사무소 근처엔 이를 상징화한 공원이 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 뿌리였다. 1896년 13도(道)제가 실시되고 전남 관찰부(觀察府)가 설치되면서 광주는 전남을 대

표하는 큰 형(兄) 도시가 됐다. 이는 전남이라는 든실한 배후지가 있어 가능했다. 배후지의 사람과 재화가 광주로 유입되지 않고, 배후지가 생산한 물산이 풍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게다가 광주를 호반의 종핵 도시로 성장시킨 도민들 합의가 없었다면 현재의 광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 전주, 경남 진주, 경북 상주 등이 좋은 증거다. 그런데 한전이 만들 ‘에너지밸리 R&D센터’(이하 센터) 입지 문제로 광주시·전남도간 상생의 빛이 바래고 있다. 한전은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연구동·시험동·옥외실증시험장 등이 들어설 센터는 11만 9000㎡(3만6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향후 조성될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단에, 전남도는 이미 조성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에 두려고 한다. 한전은 센터를 빨리 건립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눈치다. 부지 선정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달라서다. 센터는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생산할 제품의 실증·성능 시험과 관련 R&D 활동을 지원한다. 에너지밸리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그래서 센터 위치는 관련 기업들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에너지밸리의 ‘방항성’을 결정하게 된다. 센터가 남구에 들어서면 에너지밸리는 혁신도시~광주축(軸)으로, 반대가 되면 혁신도시~나주축(軸)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립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는 행정구역 이기주의와 다를 없다. 입지 갈등을 보면서 박광문 전 광주시장이 떠올랐다. 당시 박 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 상생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2005년 3월 박 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국무총리에게 공동혁신도시 건설구상과 한전 이전을 건의했다. 2005년 7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전남에 만든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일부 정치권은 박 시장 결정에 반대했지만 박 시장은 대의(大義)를 따랐다. 상생발전이란 대의가 지금의 빛가람 혁신도시를 탄생시켰다. 박 시장의 용기 있는 대의가 없었다면 한전과 에너지밸리는 다른 지역 이야기 가 됐을 것이다. 운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상생’ 주장자다. 상생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도 만들었다. 위원회 폐지 뉴스를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다른 목소리가 들

린다. 센터 유지를 위한 광주시의 ‘부지 3분의 1무상 제공설’이나 전남도의 ‘우리 그 이상 가능성’이 그것이다. 가족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한전에 지원한다니 도통 모르겠다. 2015년 당기 순이익 10조를 기록해 삼성전자가 이어 우리나라 2위 기업인 한전에게 말이다. 센터 입지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든 초심을 견지하면 된다.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고 한전 주도의 에너지밸리를 만들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를 만들테니 도와주라고 했던 주장을 기억하면 된다. 광주대도시간·광양만권·서남권 등으로 삼분(三分)된 공간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해 도시 입지를 서남권을 연결하는 영산강 중간으로 정했던 당시의 합리성을 상기하면 된다. 초등학생들도 형이 자기 밭단을 동생 남가리에 옮겨 놓은 동화의 속뜻을 헤아릴 줄 안다. 우애가 깊은 형제 이야기는 광주와 전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전의 ‘에너지밸리 R&D센터’ 입지 갈등도 마찬가지다. ‘의좋은 형제’ 동화를 떠올리면 된다.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社說

올해는 꼭 같이 불러야 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어김없이 ‘5월’이 온 것이다. 올해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동안 5월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는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을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계속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5·18 기념식은 ‘반쪽’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지난 1997년부터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는 그래도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공연단의 합창으로 바뀌었다. 공식 식순에서도 빠져 식전 공연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기념식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보훈처의 정부 행사와 5월 단체 등의 광주 기념비 옛 전남도청 앞 행사로 갈라졌다. 2년 전엔 5·18 유족 등이 행사를 거부했고, 2013년

에는 기념식장 밖에서 5월 단체 회원들에 의해 노래가 불렀다. 공식 기념식에서는 광주 시민과 야당 인사가 목청껏 부르는 사이 정부 관계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이처럼 거북살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은 정부가 ‘노래를 모두 같이 부르기에 적절치 않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안보 단체 반발이나 작사가인 황석영의 방북 경력 등 열도당도않은 이유를 대면서 제창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세상을 꿈꾸었던 ‘5월 정신’과도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유권자가 만들어 준 3당 체제에서 맞게 되는 이번 5·18의 의미는 여느 때보다 각별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민의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만큼, 생장기 아를 헤아리다면 이 노래가 동시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힘로 예상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오는 19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행사부의 조직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위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의 정부안 편성도 힘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행정자치부에 부이사관을 분부장으로 하는 정원 24명 규모의 대회 지원본부 조직 승인을 제출한 것은 지난 3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사부로부터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U대회나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개최 5년 전부터 조직위 등이 꾸려졌다. 이에 비해 볼 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준비 기간이 불과 3년간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직위 구성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보통 조직 승인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부의 조직 승인 지연은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행사부를 방문한 시의 한 관계자는 전공노 가입 건으로 행사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시 노조는 총연식 행사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행사부는 각종 정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와 행사부가 아무리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차질을 빚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지난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인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봄 기운이 완연해진 5월, 한층 선명해진 색깔의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한다. 4월을 수놓았던 벚꽃과 살구꽃, 복사꽃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아쉬움이 진 자리를 어느덧 울긋불긋한 철쭉과 눈 내린 듯 하얀 이팝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뭉치 뭉치 해도 5월의 꽃은 모란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달리 모란은 위엄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화중왕(花中王)이다.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꽃이어서 중국에서는 ‘황제의 꽃’으로 여겨 매화와 함께 나라를 상징하는 국장(national emblem)에 사용했

다. 일본에서는 잉어와 함께 문신에 자주 쓰인다. 화왕의 위치에 오른 꽃이지만 모란은 그 아름다움보다는 ‘향기 없는 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란은 그 화려한 자태에 못지않은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만 화투에서 윗줄 목단으로도 유명한 모란을 왜 향기 없는 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까. 이는 도심에서 모란을 흔히 볼 수 없어 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탓이었지만 모란과 얽힌 선덕여왕 설화가 아마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덕여왕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당 태종 이세민이 빨간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 색이 있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왔다. 선덕여왕은 그림을 보고,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 모란은 향기가 없다”며 “당 태종이 남편이 없는 나를 조롱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설화가 알려진 이후 모란은 향기 없는 꽃이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화가들은 선덕여왕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짧아 오해한 것으로 본다. 예로부터 모란은 존귀한 꽃이어서 잡스러운 것이 끼면 안 된다는 법식에 의해, 나비를 그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해석이다. 울 봄에도 강진 영광 생가에는 어김 없이 모란이 피기 시작했다. 모란이 지고 나면 복고도 이별이다. 항상 피우기 바쁘게 이별을 준비하는 봄, 모란이 지면 바로 여름이 온다고 한다. 모란은 일주일 이상 피지 않는다. 어린이날과 연휴가 겹친 이번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광 생가를 찾아 뚝뚝 떨어지는 모란을 보며 가는 봄을 만끽해도 좋을 것이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안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